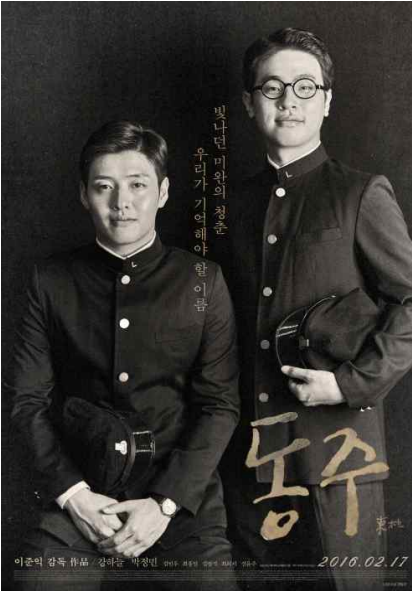


## \* 2022년 3월 추천영화 소개 \*

### 동주



“한창 달콤한 커플도, 솔로 탈출을 꿈꾸는 남녀도, 위기의 커플도, 이별한 연인도, 세상 모든 이들이 사랑을 꿈꾸는 특별한 날!  
과연 이들의 발렌타인 데이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름도, 언어도, 꿈도, 모든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일제강점기.

한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갑내기 사촌지간 동주와 몽규.

시인을 꿈꾸는 청년 동주에게 신념을 위해 거침없이 행동하는 청년 몽규는 가장 가까운 벗이면서도, 넘기 힘든 산처럼 느껴진다.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혼란스러운 나라를 떠나 일본 유학 길에 오른 두 사람. 일본으로 건너간 뒤 몽규는 더욱 독립 운동에 매진하게 되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시를 쓰며 시대의 비극을 아파하던 동주와의 갈등은 점점 깊어진다. 어둠의 시대, 평생을 함께 한 친구이자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운동주와 송몽규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드라마] 이준익 감독 | 강하늘, 박정민, 김인우 등 | 110분 | 12세관람가

### 말모이

“까막눈 판수, 우리말에 눈뜨다! vs 조선어학회 대표 정환,  
‘우리’의 소중함에 눈뜨다!”

1940년대 우리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경성. 극장에서 해고된 후 실패한 판수. 하필 면접 보러 간 조선어학회 대표가 가방 주인 정환이다. 사전 만드는데 전과자였다 까막눈이라니! 그러나 판수를 반기는 회원들에 밀려 정환은 읽고 쓰기를 떼는 조건으로 그를 받아들인다. 돈도 아닌 말을 대체 왜 모으려 했는지 판수는 난생처음 글을 읽으며 눈뜨고, 정환 또한 전국의 말을 모으는 ‘말모이’에 힘을 보태는 판수를 통해 ‘우리’의 소중함에 눈뜨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바짝 조여오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말모이’를 끝내야 하는데...

우리말이 금지된 시대, 말과 마음이 모여 사전이 되다

[드라마] 엄유나 감독 | 유혜진, 윤계상 등 | 135분 | 12세관람가

